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tress Management

暎星女子大學校 家庭管理學科 副教授

金正玉

全州又石大學 家政學科 專任講士

朴純姬

Dept. of Home Management, Hyosung Women's Univ.

Associate : Jung Ok Kim

Dept. of Home Economics, Jeonju Woosuck Univ.

Full time Instructor : Soon Hee Park

目 次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 framework for family stress management. The subjects were 287 housewives habitated in Seoul. Cronbach's α , Pearson's r , Factor analysis, ANOVA, Frequency, Perc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오늘날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가족생활의 모든면에서 가속된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가족은 결

혼에 의하여 형성, 확립되어 확대, 축소, 해체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각 단계에 따른 변화를 요구하며 진행되고 있다. 즉 가족은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감에 있어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사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이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그 자체는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89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 연구비(자유공모과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가족발달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는 변화이다 (Olson and McCubbin, 1988). 변화는 성장의 수단이고 목표달성을 위한 길이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별 어려움없이 변화에서 오는 긴장과 변화 그 자체를 관리하여 변화에 대한 적응을 잘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에게는 심지어 정상적인 발달 사건까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변화로 작용되기도 한다. 즉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Rice and Tucker ; 1986). 인간 환경에 질게 스며든 스트레스를 기능적으로 대처하여 잘 적응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인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문제가족의 발생 및 가족의 해체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McCubbin, 1979).

이처럼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스트레스를 기능적으로 관리하여 스트레스 자체를 성장의 기회 즉 위협이라기보다는 도전으로 받아들여 보다 건강한 가족을 유지, 성장, 발달시키는 것이 스트레스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는 절실히 요청되는 바이다.

가정관리는 의사결정, 가치, 계획 그리고 과정을 조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원의 사용을 방향지워주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가족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가족스트레스의 이론 중 스트레스 요인(사건), 자원 및 대응, 그리고 대응의 결과(적응)의 요소를 가정관리의 구성요소인 투입(사건), 처리(대응), 산출(적응)과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원사용을 방향지워주는 목표지향적인 행동으로서의 가정관리와 관련시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를 가족이 받은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 접근 방법으로 채택하여 가족생활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겪게되는 스트레스와 가족환경자원, 대응행동, 가족반응정도, 적응과의 관계 등을 파악함과 동시에 기능적인 가족스트레스관리의 틀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다음과 같은 조작적인 정의를 하였다.

1) 스트레서(stressor)

일상 가정생활을 진행함에 따라 겪게되는 생활사건들을 스트레서로 정의한다.

2) 스트레스(stress)

스트레서를 직면했을 때 가정관리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으로서 어려움의 정도를 스트레스로 간주한다.

3) 대응(coping)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정관리자가 취한 인식적이고 행동적인 가족내적, 외적인 대처행동을 대응이라 정의한다.

4) 적응(adaptation)

적응은 스트레스관리의 결과이다. 개인이나 가족이 환경과의 적합성을 얻기위하여 가족체계의 내적인 기능이나 외부적인 실체를 변화시키는 정도로서 적응정도에 응답한 점수를 적응으로 간주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의 본질

스트레스는 새로운 관심분야가 아니다.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고대 중국의 문자는 위협과 기회라는 두가지 특성 즉 「危機」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최근의 연구에서 적절한 양의 스트레스가 주는 이점(benefit)이나 지나쳤을 때의 위험(danger)인 즉 유익한 스트레스(eustress)와 해로운 스트레스(distress)의 두의미는 고대 중국의 문자인 「危機」 즉 「危」字는 위협으로서 distress에, 「機」字는 도전의 기회로서의 eustress로 이분화되어 있어 이것은 상당히 흥미 있는 일이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다. 물리학 분야에서는 기계적인 체계나 구조에 작용하는 장력, 압력 그리고 힘을 스트레스라고 일컬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신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생리적 상태를 설명

하기 위해서 심신건강의 분야에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도입하였다(Crowder, 1983). 스트레스연구의 초기 개척자이자 의사인 Selye는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스트레스반응을 일으킬 수 없다해도 스트레스 증상은 누구에게나 항상 비슷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즉 스트레스 증상으로서의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이 빨라지고, 아드레날린과 다른 홀몬들이 생성되고 숨이 가빠지고 혈액과 혈당이 신체 말단 부분으로 몰려간가(Selye, 1965). 스트레스는 특정한 생물학적 작용에 의하여 환경과 개인간의 상호작용의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Cooper, 1981). 스트레스는 인류가 동굴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잔존물이다. 스트레스는 에너지를 생성시키며 이 에너지는 신체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태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 당시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생존기계——위험에 직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였으며 그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스트레스는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당연하고 반사적이며 보편적인 반응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건강문제이고 일의 생산성에 관한 문제이며 가족에게 있어서는 가족의 통합과 가족의 재생산에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많은 질병들——천식, 고혈압, 심장병, 궤양, 당뇨병 등——과 관련된다. 이러한 질병들은 매우 심각하며 치명적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일을 혼란시킬 수 있고 가족내에서의 역할구조와 경제영역을 와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트레스가 유해한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 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도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여 바라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실제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낮게 할 수도 있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방어기체 중 일부는 감정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억눌려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 급성스트레스가 간헐적으로 일어나면 신체의 면역체계는 회복될 수 있다. 스트레스가 장기적일 경우에는 면역체계의 질서는 혼란

된다. 반복적인 급급성 스트레스 사건들은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이렇게 생성된 아드레날린을 소모하기 위하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동맥에 콜레스테롤을 축적 조장시켜 심장병에 이르게 한다(Sarason, 1975). 그것은 과다한 아드레날린이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응집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붕괴될 수도 있다.

이상의 고찰 결과 스트레스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eustress)할 수도 있고 해로울(distress)수도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장기화되어 만성적이 될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하게되고 가족에게는 응집력을 파괴하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오는 스트레스를 삶의 만족을 주는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스트레스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선행연구의 고찰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Angell(1936), Cavan and Ranck(1938), Koos(1946) 그리고 Hill(1949)의 연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족 스트레스 이론형성에 초석이 된 사람은 Hill이며 그 후에 Broderik(1970), Burr(1973), Hansen(1976), McCubbin(1979) 등이 경험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확장된 개념 및 대응방법을 제시하였다(McCubbin팀, 1980 : 855-56).

가족스트레스와 곤경(hardship) 그리고 대응방안에 관한 이론적, 임상적인 관심은 보다 최근의 현상이다.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중요한 사회적 사건에 기인한다. 즉 1930년대의 경제공황은 Angell(1936), Cavan and Ranck(1938) 등에게 가족 스트레스 연구를 위한 상황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Boss, 1987 : 696).

Angell(1936)은 갑작스런 수입의 상실로 인하여 가족이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한 가족의 반응을 결정하는 두 가지의 주요요인으로 가족의 통합(integration)과 적응성(adaptability)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역할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가족보다 상호변화가 가능한 융통성이 있는 가족들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

Cavan and Ranck(1983)는 경제공황이전과 경제공황동안 즉 1927-1935년의 8년간에 걸친 가족들의 종적인 연구에서 가족이 과거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당시에 사용한 대처방법은 그들의 현재의 역경에 대한 대응방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본래 잘 조직화된 가족은 비록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수입의 손실이 심할 경우에도 그 조직성은 지속된다. 반면에 잘 조직화되지 못한 가족은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더욱 무질서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시사해 준다.

Koos(1946)는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한 스트레스 연구에 초점을 두고 뉴욕시 빈민가에서의 문제점들과 위기들을 연구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도시생활은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Hill(1949)은 Koos의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Roller coaster model(일명 Jet coaster model)을 발전시켰다. 그리고 Koos는 가족들이 겪게되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urr(1973)는 스트레스 이론에 관한 연구들을 통합함으로써 Hill의 이론에 취약성과 재생력의 개념을 첨가하여 이론을 재구성하였다(McCubbin팀, 1980 : 856).

이러한 연구에 자극을 받은 많은 학자들이 가족스트레스 연구와 이론구축에 새로운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McCubbin and Patterson(1982)은 Hill의 AB-CX 가족위기모델을 계승 발전시켜 최근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Double ABCX Model을 개발하였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국면을 중시한 이 모델은 Hill과 Burr의 이론에 시간의 개념을 첨가한 것이다(Rice팀, 1986 : 272).

Boss(1987)는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다양한 가족스트레스 요인사건들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가족경계의 模糊性(family boundary ambiguity)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Boss는 그의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가족경계의 모호성의 영향은 주로 Hill의 ABCX 가족위기모델에서 C 요인 즉 시각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스트레

스에 대한 연구의 시작으로는 정민자(1984), 배종렬(1985), 김정옥(1988), 김양희(1989)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정민자(1984)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성별, 교육정도, 가정생활단계, 가족수입의 요인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가족스트레스의 정도는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렬(1985)은 그의 연구에서 일상사건의 변화정도와 distress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긴장이 가장 문제시되는 상황으로 나타났고, 극복방안의 경우와 관계 있는 것은 심리적 자원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극복방안 중에서 심리적자원은 distress를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였다.

김정옥, 이광주(1988)는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자녀의 양육태도, 경제적인 곤란, 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 시간, 부부간의 성생활 등을 지적하였고 주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결혼생활지속연수, 자녀수, 사회경제적지위를 지적하였다.

김양희(1989)는 스트레스 정도에 관련된 변인으로 자녀의 학급성적을, 가족자원의 관계하는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주부의 직업유무, 자녀의 성적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가족자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율적인 적응방법을 강조하였다.

3. 가족스트레스의 대한 諸理論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이론은 가족에 대한 연구분야 가운데 가족병리학의 한 연구영역으로서 미국의 가족사회학자들에 의해 어느 정도 이론적인 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Hill(1949)의 두 가지 이론 즉 ABCX 가족위기모델과 Jet Coaster Model, Burr(1973)의 수정이론 그리고 McCubbin and Patterson의 Double ABCX Model을 소개하고자 한다.

1) Hill 가족스트레스 이론

Hill은 가족스트레스 연구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전쟁(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가족별거와 재

결합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모델인 ABCX 가족위기모델과 위기에 대한 적응과정을 나타낸 Jet Coaster Model을 개발하였다 (Walker, 1985 : 827-34).

① ABCX 가족위기모델

ABCX 가족위기모델은 가족위기 혹은 스트레스 상황발생의 인과모델로서 위기상황의 발전과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ABC→X론이며 그 중심구조에서 A(스트레스요인이 되는 사건)는 B(가족의 위기에 대한 대응 자원) 및 C(그 사건에 대한 정의)와 상호작용하여 X(위기)를 유발시킨다.

A(사건)

- B(가족위기의 해결자원)와의 상호작용
- C(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과 판단)와의 상호작용
- X(위기)발생

A요인은 가족의 사회적 체계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이 있는 생활사건이나 변화 혹은 거기에 수반되는 곤란상 즉 상황이나 사건 및 그로 인한 곤경을 뜻한다.

B요인은 사건이나 변화가 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는 가족자원을 의미하며, 가족의 응집성 및 적

응성의 수준과 과거에 위기를 극복한 경험 등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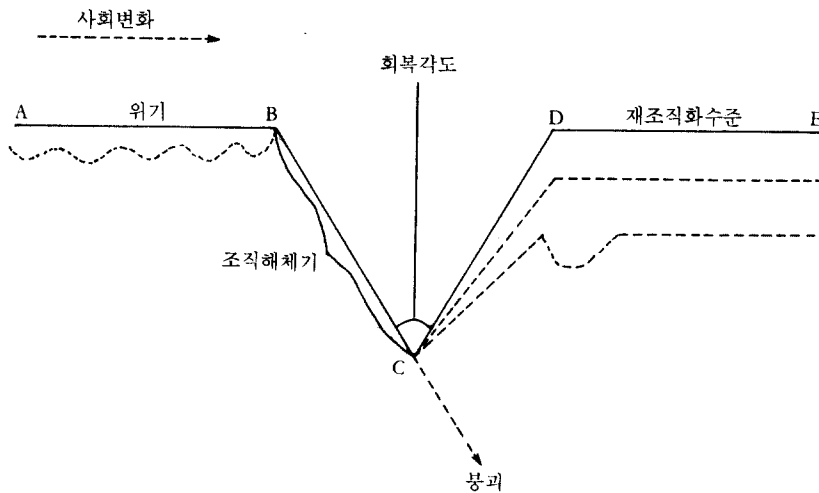
C요인은 가족이 A요인에 대해 갖는 즉 어떤 사건이 그들의 지위나 목표에 대하여 위협인지 아닌지를 지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C요인은 가족의 위기경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이들 ABC 세 요인은 각 가족의 배경, 자원, 사건해석에 있어서 각 가족에게 고유한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X요인은 가족체계내에서 일어나는 곤란의 정도를 뜻한다. X요인은 안정성회복에 대한 가족의 무능력을 초래하고 가족구조와 상호작용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속적인 압력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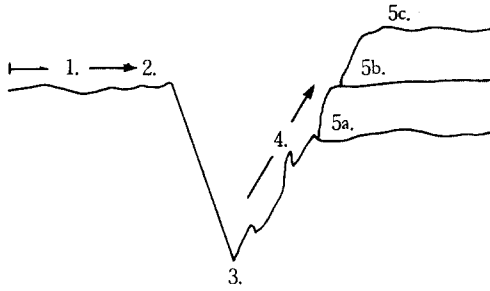
② Jet Coaster Model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조직해체(disorganization)——회복(recovery)——재조직화(reorganization)하는 가족의 적응과정을 나타내는 Jet Coaster Model (일명 Roller Coaster Model)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보면 A→B의 방향이 가족의 조직화에 의한 사회적응정도에 있고 B점에 있어서 위기적 사실에 직면하여 B→C의 방향으로 가족의 조직해체가 일어난다. 그러나 가족은 스스로의 힘으로 C→D의 방향으로 회복하고 나중에 D→E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응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대응과정에서 조직해체기간은 그 가족의 취약성과 재



<그림 1> 대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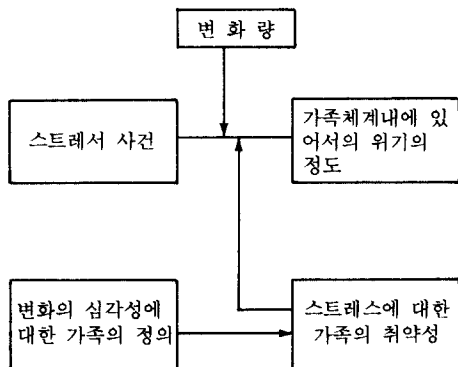


1. 사건발생전의 가족기능수준
2. 사건발생
3. 분열의 최저점
4. 회복시기
5. 재조직화의 수준
 - a. 이전의 기능수준보다 아래
 - b. 이전의 기능수준과 동등
 - c. 이전의 기능수준보다 상승

〈그림 2〉 가족위기모델모형

생력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즉 가족이 취약하고 재생력이 부족하면 조직해체기간은 길어지고 회복각도는 커지게 되어 가족의 재조직수준이 낮아지거나 또는 가족의 붕괴를 초래한다.

Boss(1987 : 697)가 Hill의 Jet Coaster Model을 수정한 것을 참고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3〉 Wesley Burr's Adaptation of Reuben Hill's ABCX Stress Model

Boss의 모형에서는 Hill의 모형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재조직화의 수준내에서 위기 이전의 수준보다 더 기능이 상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2) Burr의 가족스트레스 이론

Burr(1973)는 Hill의 ABCX 가족위기모델을 연역적 이론으로 재구성하여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수정모델을 제시하였다. Burr는 Hill의 가설에 취약성과 재생력이라는 개념을 첨가하였으며, 그의 연구의 핵심과 Hill의 가설과의 관계는 〈그림 3〉에 잘 반영되어 있다.

변화에 대한 지각 그리고 가족적응은 가족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족의 적응성은 가족의 재생력에 영향을 준다. 가족사회체계의 위기정도는 스트레스 요인사건과 변화량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과 관련이 있다.

3) Double ABCX Model

McCubbin and Patterson(1982 : 26-27)에 의해 개발된 Double ABCX Model은 최근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이며 Hill ABCX 가족위기모델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Double ABCX Model은 위기이전(post-crisis) 행동을 평가하고 위기상황에서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가족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델은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요인 a. 기존자원으로서 요인 b. 의미설정으로서 요인 c의 세 요인을 위기이전(pre-crisis)요인으로 하고, abc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해 생긴 위기를 x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위기에 대하여 가족이 순적응(bonadaptation) 또는 부적응(maladaptation) 해 나가는 과정을 위기이후 단계로 하여, 위기이전의 대응 및 적응과정에도 위기이전의 abc 요인과 비슷한 ABC 세 요인이 게재된다(그림 4).

4.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설정

이상에서 살펴 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적인 연구모형 (그림 5)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투입요소(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처리과정(대응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산출(가족적응)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투입요소(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와 처리과정(대응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5. 처리과정(대응행동)과 산출(가족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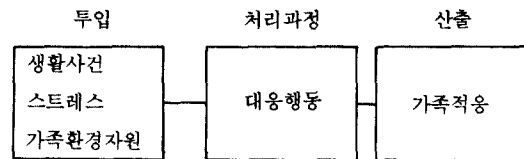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가정관리자(주부)를 대상으로 1990년 3월27일부터 4월10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300부를 배부하여 290부가 회수되었고, 287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AS computer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F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Reliability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2. 척도의 구성

가족의 생활사건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McCu-



〈그림 5〉 개념적인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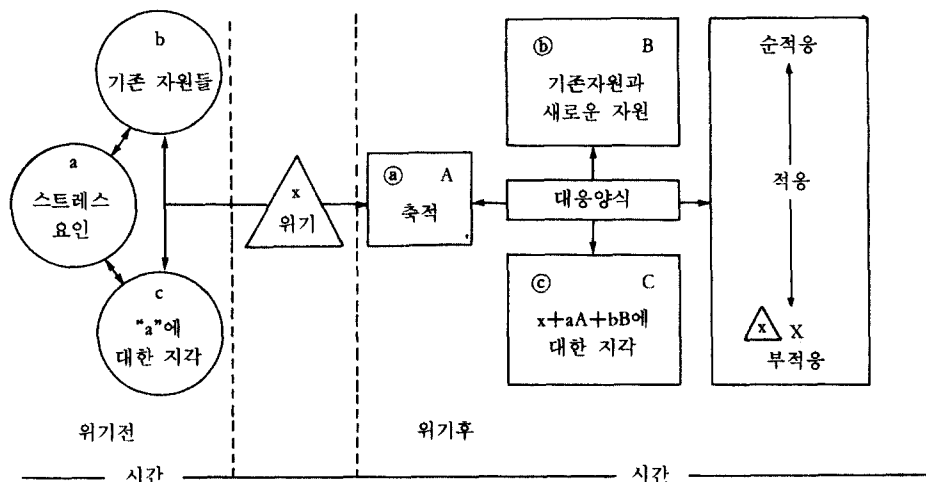
bbin, H.I., L.R.Wilson, J.M.Patterson(1979)의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생활사건 목록들로 구성되었다. 87문항에 대한 경험유무, 어려움의 정도(4점척도), 적응정도(4점 척도)로 각 수준들을 파악하였다.

생활사건은 가족내 긴장, 부부간 긴장,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 이행의 긴장,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 가족원의 출입, 가족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구성되었다.

대응행동의 측정도구는 McCubbin, H. I & J. M. Patterson(1981)의 측정도구에 가정관리행동 중 처리과정인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대처행동 문항을 첨가하고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대응행동은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 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로 대응행동이 파악되었다.

대응행동척도(coping behavior scale)에 대한 신뢰



〈그림 4〉 Double ABCX Model

도 분석, 59문항의 대응 등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Coefficient Alpha 값은 0.92로 나왔다. 대응행동의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를 통한 내적합치도로 볼 때 척도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대응행동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59문항의 대응행동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행렬표)를 구하여 Eigenvalues가 1이상인 Factor가 16개임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 Factor를 4개 추출하여, Varimax 작업을 통하여 확정하였고 <부록 1>과 같다.

요인1은 “전략적 행동변화”, 요인2를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요인3은 “사회적지원”, 요인4는 “종교에 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라 명명하였다.

가족환경자원의 측정도구는 Moos, R. H & B. S. Moos(1981)의 FES(The Family Environment Scale) 중 72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그렇다, 그렇지않다의 2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부록2>와 같다.

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투입요소의 ANOVA

연구문제1.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투입요소(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에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1의 검정을 위하여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의 F검정과 Duncan's Multifl Range Test를 하였다(표 1,2,3).

생활사건($F=23.06^{***}$), 스트레스($F=16.3^{***}$)는 각 가족생활주기의 평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자원($F=0.70$)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기 및 미취학기 가족의 생활사건 평균과 스트레스 평균은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고, 신혼기 및 미취학기 가족은 학동기 및 청년기 가족과 진수기 및 노년기 가족과는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생활사건의 하위부문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의 F검정과 D.M.R.결과 가족내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 가족원의 출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의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가족원의 출입은 Grouping에서 세 집단으로 구분되고,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과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은 신혼기 및 미취학기가 다른 집단과 분리되고, 가족원 및 친척 친한사람의 상실은 진수기 및 노년기가 다른 집단과 구분지어졌다.

스트레스의 하위부문에 대한 F 검정과 D.M.R.결과 가족내 긴장이 각 생활주기의 평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세 집단으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은 학동기 및 청년기 가족이 가장 높고, 진수기 및 노년기, 신혼기의 순이었다.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도 유의한 차이가 있고 신혼기의 평균이 낮고, 다른 두 집단과 구분지어졌다. 가족원의 출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은 구분되지 않았다. 가족환경자원의 각 하위부문에 차이 있는 것은 없었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처리과정의 ANOVA

연구문제2.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처리과정(대응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대응행동에 대한 F 검정과 D.M.R.결과(표4) 각 가족생활주기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행동의 하위부문에서는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진수기 및 노년기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학동기 및 청년기, 신혼기 및 미취학기의 순이었고 신혼기 및 미취학기와 나머지 집단(학동기 및 청년기 그리고 진수기 및 노년기)과의 두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산출의 ANOVA

연구문제3.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산출(가족적응)

〈表 1〉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생활사건

가정 생활 주기	생 활 사 건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82	2.683	A	82	0.2683	A	82	1.451	C	82	3.256	B	82	0.788	B	82	0.476	B	82	0.0602	A	83	9.361	B
가족내긴장	60	0.3667	A	60	0.3667	A	60	4.543	A	60	1.600	A	60	0.683	B	60	0.783	B	60	0.1000	A	60	17.417	A
가족내긴장	141	0.582	A	140	2.236	A	140	0.633	A	140	1.343	A	140	1.164	A	141	1.154	A	141	0.0496	A	141	16.220	A
F	19.25***			41.86***			7.31***			7.51***			14.32***			44.52***			0.46		23.16***			

*P<.05 **P<.01 ***P<.001

〈表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스트레스

가정 생활 주기	생 활 사 건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22	2.1363	A	22	2.1363	A	22	8.014	B	22	5.530	A	28	3.893	A	28	2.944	A	3	3.0667	A	79	23.304	B
가족내긴장	30	4.967	A	30	4.967	A	30	10.764	A	41	6.220	A	24	4.833	A	39	2.800	A	6	2.833	A	60	42.700	A
가족내긴장	56	4.200	BA	56	4.200	BA	56	10.933	A	99	5.222	A	88	5.091	A	114	3.833	A	5	4.000	A	140	40.071	A
F	8.80***			5.37			3.99*			1.26			2.165			3.28*			0.85		16.3***			

*P<.05 **P<.01 ***P<.001

〈表 3〉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적응

가정 생활 주기	가 족 적 응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가족내긴장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19	3.105	B	19	3.105	B	19	11.456	B	32	5.344	A	28	3.909	B	18	4.000	B	2	2.500	A	73	29.781	B
가족내긴장	29	3.891	A	29	3.891	A	29	13.825	AB	39	5.923	A	24	4.333	AB	33	3.939	B	5	2.400	A	59	46.441	A
가족내긴장	54	4.296	A	54	4.296	A	54	14.902	A	96	5.177	A	86	5.000	A	113	5.639	A	5	3.400	A	139	47.424	A
F	8.08***			3.83*			3.59*			0.70			3.27*			7.15***			0.60		16.06***			

*P<.05 **P<.01 ***P<.001

〈표 3〉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족환경자원

구 분		가족환경자원									가족환경자원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체계유지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가정 생활 주기	신혼기및 미취학기	83	15.229	A	83	22.831	A	83	11.169	A	3	40.205	A
	학동기및 미취학기	60	14.533	A	60	22.717	A	60	10.333	B	60	39.317	A
	진수기및 노년기	140	14.900	A	140	23.357	A	140	10.800	A B	140	40.493	A
	F		1.38			0.57			1.91			0.70	

*P<.05 **P<.01 ***P<.001

〈표 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대응행동

구 분		대 응 행 동										대응행동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 변화				사회적 자원		종교의 의지 긍정적 사고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N	평균	Grouping			
가정 생활 주기	신혼기및 미취학기	83	31.494	A	83	33.590	A	83	16.410	A	83	10.892	C	83	92.386	A
	학동기및 청년기	60	34.850	A	60	33.250	A	60	17.617	A	60	13.050	A	60	98.767	A
	진수기및 노년기	141	32.064	A	141	31.546	A	141	18.319	A	141	15.099	A	141	97.028	A
	F		1.08			1.16			0.96			15.99***			0.82	

*P<.05 **P<.01 ***P<.001

에는 차이가 있는가?

가족적응에 대한 가족생활주기의 F검정과 D.M.R. 결과(표5) 가족적응(F=16.06***)은 각 가족생활주기의 평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혼기 및 미취학기가 가장 낮았고, 학동기 및 청년기, 진수기 및 노년기와 구분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응의 하위부문에 대하여는 가족내의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 가족원 및 친척, 친한사람의 상실, 가족원의 출입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긴장은 신혼기 및 미취학기의 평균이 낮고, 따로 Grouping되었다.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은 진수기 및 노년기가 신혼기 및 미취학기와 학동기 및 청년기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과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은 학동기 및 청년기가 신혼기 및 미취학기, 진

수기 및 노년기 양쪽 모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의 출입은 진수기 및 노년기의 평균이 높으면서 신혼기 및 미취학기, 학동기 및 청년기와 다른 집단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 투입요소와 처리과정의 관계

연구문제4. 투입요소(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와 처리과정(대응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투입요소와 처리과정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표 6) 생활사건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은 대응행동과 정적상관(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사건의 하위집단과 대응행동 하위집단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7) 생활사건의 하위집단에서 가족내 긴장(P<.001), 부부간 긴장(P<.001), 경제·사업

〈표 6〉 대응행동,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자원, 가족적응의 상관관계표

	생활사건	스트레스	가족환경지원	가족적응
대응행동	0.278***	0.172***	0.272***	0.245***

*p<.05 **p<.01 ***p<.001

〈표 7〉 생활사건과 대응행동의 상관관계

구 분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사고	대응행동
가족내 긴장	.25165***	.10710	.23228***	.24877***	.26409***
부부간 긴장	.21966***	.13285*	.07643	.17333**	.19602***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02548	.01923	.14627*	.04993	.07188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20680***	.04724	.14769*	.19869***	.18819**
직업 및 가족생활 이행의 긴장	.31353***	.12495*	.22256***	.30133***	.30254***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	.05958	-.07045	.07142	.10725	.04430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	.01815	-.05739	.07298	.22955***	.05253
가족원의 출입	-.02832	-.04905	.02206	.25281***	.02310
가족원의 위법행위	.03467	-.02560	.01799	.07807	.02655
생활사건	.27118***	.07930	.23037***	.33518***	.27847***

*P<.05 **P<.01 ***P<.001

에 관한 긴장(P<.001),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P<.001)은 대응행동전체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행동의 “전략적 행동변화”(P<.001), “사회적 지원”(P<.001),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P<.001)가 생활사건 전체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긴장에는 “전략적 행동변화” “사회적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 “문제중심의 의식변화”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긴장에는 “전략적 행동변화”(P<.001), “문제중심의 의식변화”(P<.05)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 사고”(P<.01)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적 지원”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에는 “사회적 지원”(P<.05)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에는 “전략적 행동변화”(P<.001), “사회적 지원”(P<.05)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P<.001)가 관련이 있었고, “문제중심의 의식변화”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에는 “전략적 행동변화”(P<.001), “문제중심의 의식변화”(P<.05), “사회적지원”(P<.001)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P<.001) 모두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과 가족원의 위법행위는 대응행동의 4요인 모두와 상관이 없었다. 가족원 및 친척, 친한사람의 상실과 가족원의 출입에는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P<.001)만 유일하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대응행동의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표

〈표 8〉 스트레스와 대응행동의 상관관계

구 분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사고	대응행동
가족내 긴장	.08719	.08322	.11626*	.15732**	.11676*
부부간 긴장	.08511	.01369	.07869	.08245	.05886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03553	-.08023	.14048	.08615	.01553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00050	.03873	.18809***	.16791**	.09381
직업 및 가족생활 이행의 긴장	.08449	.08705	.11849*	.11552*	.10797*
질병 및 가족보살 핍에 의한 긴장	.07559	.07299	.12365*	.18071**	.11201*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	.05752	.05243	.05730	.15150*	.06309
가족원의 출입	-.03328	-.00692	.15802**	.04410	.03138
가족원의 위법행위	.24306	.21012	.22279	.12379	.28394*
스트레스	.11505*	.09794*	.21026***	.21833***	.17158***

*P<.05 **P<.01 ***P<.001

〈표 9〉 가족환경자원과 대응행동과의 상관관계 I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사고	대응행동
대인관계	.03362	.07636	-.00540	.05738	.04867
개인적 성장	.32279***	.20563***	.15390**	.25271***	.30532***
체계유지	.05298	.00984	.00934	.03425	.02954
가족환경자원	.22856***	.22020***	.21678***	.16426**	.27168***

*P<.05 **P<.01 ***P<.001

8), 스트레스의 하위집단 중 가족내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 가족원의 위법행위가 대응행동과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대응행동의 하위집단 “전략적 행동변화”와 “문제중심의 의식변화”(P<.05), “사회적 지원”과 “종교에의 의지”(P<.001)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내 긴장은 “사회적 지원”(P<.05) “종교에의 의지”(P<.01)와 유의한 관련이 있고,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의 긴장은 “사회적 지원”과 “종교에의 의지”가 모두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및

가족 보살핌에 의한 긴장은 “사회적 지원”(P<.05), “종교에의 의지”(P<.001)와 가족원 및 친척, 친한 사람의 상실은 “종교에의 의지”와 P<.05 수준에서, 가족원의 출입은 “사회적 지원”과 P<.01이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긴장, 임신·출산에 수반하는 긴장, 가족원의 위법행위는 대응행동의 하위집단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고, 대응행동의 하위집단에서 “전략적 행동변화”와 “문제 중심의 의식변화”는 스트레스(P<.05)와는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스트레스의 하위집단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자원의 하위집단과 대응행동 하위집단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9) 가족환경전체와 “전략

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 지원" (P<.001)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P<.01) 은 유의한 상관이 있으나 가족환경자원의 하위집단 중에서는 개인적 성장차원만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고 (P<.001) "사회적 지원"고 (P<.01),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P<.001) 그리고 대응행동전체 (P<.001)가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경자원의 하위집단인 대인관계는 대응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관계의 하위 집단인 응집성, 표현성, 갈등에 대한 상관관계 (표 10)를 보면 응집성은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P<.05)와 상관이 있고 표현성은 "전략적 행동변화" (P<.01)와 "사회적 지원" (P<.01)이 상관이 있다. 갈등은 "사회적 지원" (P<.05)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성장의 하위집단인 독립성, 성취지향성, 지적, 문화적 지향성,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지향, 도덕·종교성 강조에 대한 대응행동 하위집단의 관계에서 독립성과는 "전략적 행동변화" (P<.001)와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P<.05)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성취지향성에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P<.001)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지적문화적 지

향성에는 "전략적 행동변화" (P<.001),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P<.05),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P<.01)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지향에는 "전략적 행동변화" (P<.001)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P<.001), "사회적 지원" (P<.01)이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도덕·종교성 강조에는 사회적 지원" (P<.01)과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P<.001)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체계유지차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조정도 대응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처리과정과 산출과의 관계

연구문제5. 처리과정(대응행동)과 산출(가족적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처리과정과 산출의 관계는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표 6) 결과 대응행동과 가족적용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 에 따라 투입요소 — 생활사건, 스트레스 수준, 가족환경자원 — 중

<표 10> 가족환경자원과 대응행동과의 상관관계 II

	전략적 행동변화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사회적 지원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
대인관계				
응 집 성	-.06657	.13794*	-.02780	.07053
표 현 성	.16179**	.05291	.15831**	.01128
갈 등	-.03655	-.02714	-.14655	.03874
개인적 성장				
독 립 성	.25294***	-.01475	.03852	.12765*
성취지향성,	.03023	.23016***	.02110	.11408
지적, 문화적	.31898***	.12087*	.06392	.19006**
지 향 성				
활동적 레크리	.30865***	.22229***	.16147**	.10929
에이션 지향성				
도덕, 종교성강조	.06277	.06216	.18756**	.24622***
체계유지				
조 직	.00653	-.00455	.01124	-.00732
조 정	.08728	-.01253	.00424	.06919

*P<.05 **P<.01 ***P<.001

생활사건과 스트레스 수준 부분에서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과정인 전체 대응행동 영역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응행동의 하위영역인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의 행동영역에서는 집단간의 매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생활사건에 대한 가족적응과 생활주기와의 관계에서는 전체 생활사건에 대한 가족적응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고 생활사건의 하위영역 중 가족내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에의 긴장, 가족원 및 친지의 상실 및 가족원의 출입 영역에서의 가족적응은 가족생활주기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가족학자들이 오래동안 관심을 기울여 온 부분, 즉 가족들은 그들의 중요한 상호작용 패턴을 달리하고 있고 가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한다는 가정하에서 본 연구는 가족생활주기와 투입요소(생활사건, 스트레스수준, 가족환경자원), 처리과정(대응행동), 그리고 산출부분(가족적응)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그 확인을 시도하였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의 스트레스의 누적을 검토해 본 결과 젊은 부부의 가정 보다 학동기의 자녀 및 청년 전·중기의 자녀(중·고등학생)를 둔 가정과 청년후기(대학생, 직장인)의 자녀를 가진 가족간의 긴장 수준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동기 및 청년기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 가족성원 상호간의 갈등과 역할긴장 그리고 사회적인 긴장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외적인 요구보다 내적인 요구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생활사건 영역에 있어서의 가족의 적응은 자녀가 없거나 어린가정이 학동기·청년기 및 자녀가 출가한 가정(empty nest)보다 잘 적응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청년기나 학동기 단계로의 이행 그 자체의 어려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Hansen & Johnson, 1979; Hill, 1973; Mechanic, 1974)를 지지해 준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보다 높은 역할의 복잡성을 시사해 준다. 즉 이것은 부모와 자녀간 그리고 자녀들간 잦은 갈등 그리고 시대 식구와의 갈등, 역할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자녀관리, 해결하지 않은 문제의 증가, 완성하지 않은 사소한 일)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생활사건과 변화의 누적은 가족의 긴

장을 증가시키는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Lavee, 1985)에 바탕을 두면 부모기 단계에서의 가족의 긴장은 가족내부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요구에 대한 누적은 자녀가 없거나 어린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녀가 학동기, 청년기에로 진행함에 따라 증가했다가 탈부모기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했다. 이러한 긴장의 증가는 이들 가족에게 상당한 취약성을 반영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앞서 말한 두 가정 즉 가족들은 그들의 중요한 상호작용 패턴을 달리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족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스트레스수준(어려움의 정도)과 대응행동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로 밝혀졌다. 따라서 생태체계적인 관점에서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긴장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대응행동을 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가족내 긴장”, “경제·사업에 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이행에의 긴장”, “질병 및 가족보살핌에 의한 긴장” 영역에는 “사회적 지원”과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와 대응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정관리자(주부)가 일상적인 가족 생활사건이 스트레스로 반응될 때 가족내부나 개인 혼자 능력으로써 문제 중심적인 관리행동이나 역할기대와 생활스타일을 바꾸어보는 전략적인 행동변화와 같은 내부적이고 문제분석적인 방법으로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보다는 사회적 지원(친구, 친척, 이유 등)이나 종교에 의지하는 것과 같은 외부적이고 소극적인 해결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족환경자원과 대응행동과의 관계에서 모든 대응행동이 전체 가족환경자원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전략적인 행동변화”의 대응행동은 개인 관계 영역의 표현성, 개인적 성장영역의 독립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그리고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지향성에 관계가 있었다. 즉 주부가 취한 “전략적인 행동의 변화”의 대응행동양식은 가족성원의 감정을 직접 표현하게끔 격려해 주고 성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지적·문화적인데 대한 관심을 증가시켜주고 가족성원이 함께하는 활동을 하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문제중심의 의

식변화”의 대응행동은 응집성, 성취지향성, 지적·문화적 지향성, 활동적 레크리에이션 지향성의 자원과 연결되었다. 따라서 문제 그 자체에 대한 지각을 달리 정의해 보는 대응행동은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지지하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의 대응행동은 도덕적·종교적인 것을 강조하게 하고 가족끼리 함께하는 활동을 있게 했으며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인 사고”의 대응행동은 가족들로 하여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자원을 가지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중심적인 관리행동 및 전략적인 행동변화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처할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가족스트레스관리를 위한 틀(그림 6)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설로 제시된 개념적인 연구모형과 가족스트레스 이론 Double ABCX Model과를 관련시켜 보면, 투입부분인 생활사건은 스트레스 이론 중 스트레스 요인인 ㉔요소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한 지각인 ㉓, 가족환경자원은 기존자원인 ㉒요소에 해당된다. 그리고 처리과정인 대응행동은 기

존자원 ㉑와 새로운 자원 B, 자원과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지각 ㉓ C, 산출부분인 가족적응에는 X요소가 해당되어 가족스트레스이론 Double ABCX Model은 본 연구의 결과인 가족스트레스관리의 틀을 형성하는데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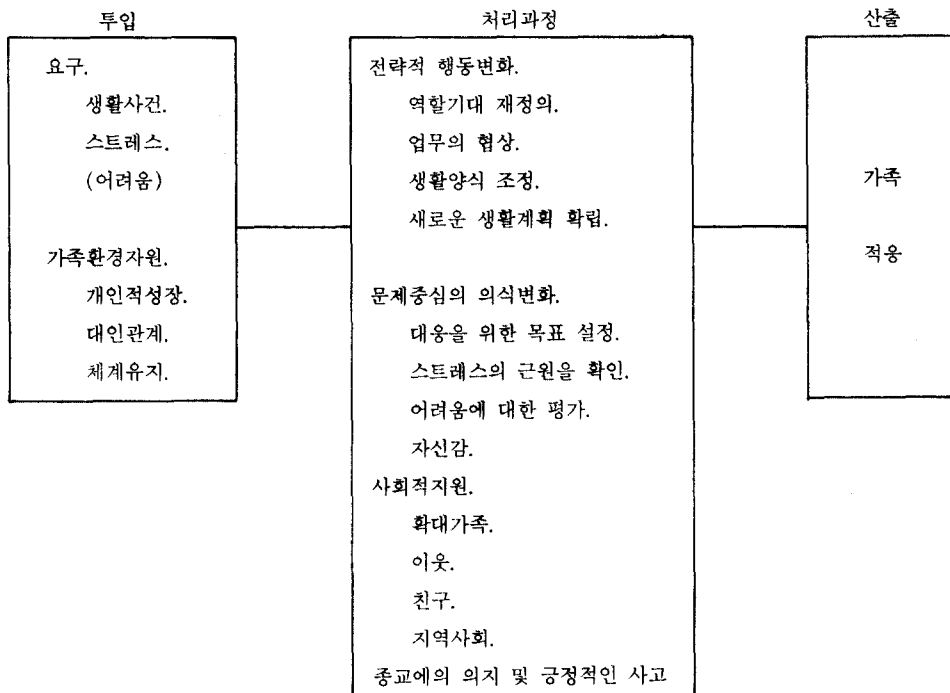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 채택한 가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정관리학적인 접근방법은 가족이 받은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생활사건의 경험과 그 사건의 응답과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시간적 차이에 의한 지각의 차이를 배제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제한점에 관련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횡단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 대한 종단적인 통시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간적 변화에 따른 투입요소, 처리과정, 산출의 변화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하여 각 가정의 특성 및 생활주기에 따른 효율적 대응책이 가정관리자인 주부에게 홍보되

〈그림 6〉 가족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틀



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가족스트레스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이 전문 서비스기관을 이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사회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양희 ·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9(1), 25-42.
- 2) 김정옥, 이광주,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88, 16:37-59.
- 3) 배종열,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4) 정민자,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5) Boss, P., Family Stress: Perception and Context. In Sussman, M. and Steinmetz, S. (Eds) Handbook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Publ, 1987.
- 6) Burr, W. R.,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3.
- 7) Cooper, C. L., The Stress Check,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81.
- 8) Crowder, W. W., Teaching About Stress, clearing house, 1983, 57, 36-38.
- 9) Hill, R.,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49.
- 10) Hansen, D., & Johnson, V., Rethinking family stress theory: Definitional aspects. In W. Burr, R. Hill, f. Nic, & I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I). New York: Free Press. 1979.
- 11) Hill, H., Family Life Cycle: Critical role transitions. Paper presented at the Thirteenth International Family Research Seminar, Paris, 1973.
- 12) Koos, E. L., Families in trouble, New York: King's Crown Press, 1946.
- 13) Lavee, Y.,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Integrating the Circumf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14) McCubbin, H. I.,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 41(2):237-44.
- 15) McCubbin, H. I., Joy, C. B., et al,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0, 42(4):851-71.
- 16) McCubbin, H. I., Cauble, A. E. and Patterson, J. M., Family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2, x iv.
- 17) McCubbin, H. I., and Patterson, J. M., Chip-Coping Health Inventory for Parents: An Assessment of Parental Coping Patterns in the Case of the Chronically Ill Chil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3, 45(2):359-70.
- 18) Mechanic, D., Social structure and Personal adaptation: Some neglected dimensions. Inc. Goelilio D. Hamburg & J. Adams(Eds.), New York: Basic Books, 1974.
- 19) Olson, D. H. & McCubbin, H. H., Types of families and Family response to stres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In David M. Kline & Joan Aldous(ed), Social Stress and Family Developmen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1988.
- 20) Rice, A. S. and Tucker, S. M., Family Life Management: Managing Stress Macmillan, 1986.
- 21) Sraason I. G., & C. D. Spielberger(Eds), Stress and Anxiety, Hemisphere, Washington, 1975.
- 22) Sely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65.
- 23) Selye, H.(Eds), Selye's Guide to Stress Research (Vol. 1), New York: Van Nostand ReinHold, 1980.
- 24) Walker, A. J., Reconceptualizing Family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5. 47(4): 827-37.

<부록 1> 대응행동의 요인구조

	대 응 행 동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1 전략적 행동변화	19. 나의 일(직업)에 보다 더 시간과 정력을 쏟는다	· 63610
	7. 역할기대를 바꾼다	· 59430
	9. 생활 스타일을 바꾸어 본다	· 58401
	8. 책임 맡은 일을 바꾼다	· 57953
	6. 일상적인 일들을 한 번에 묶어서 처리한다	· 56148
	26. 정기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어울린다(외식, 영화감상)	· 51159
	24. 멧을 내고 몸치장을 한다	· 50189
	10. 새로운 행동방식이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조화되도록 한다	· 48931
	25. 친구들과 사회적 활동(파티, 종교활동, 계) 에 어울린다	· 48338
	42.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서 단번에 해결해 버리려고 한다	· 48314
	11. 새로운 생활계획을 세운다	· 46682
	27. 배우자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확립한다	· 45647
	30. 화풀이를 한다(나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을 허용하기)	· 45132
	17. 여행을 떠난다	· 43619
	53.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42259
	21. 친구들과 집에서 환담을 나눈다	· 41253
	12. 내가 중요하고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도와주는 인간 관계와 우정을 나눈다	· 40700
	20. 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한다	· 39452
	15. 먹는다	· 37988
31. 가사노동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 29886	
43. (특별히 드러낼 일은 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 25972	

	대 응 행 동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2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38. 가족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각한다	· 64393
	4. 쉬운 방법부터 시작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찾아본다	· 61725
	5.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자원들(시간, 에너지, 금전)을 구한다	· 59079
	34.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자각한다	· 57023
	2.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어려움의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알려고 한다	· 56018
	22. 나는 감사해야 할 일이 많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 53936
	1. 지금 우리가 무엇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려고 한다	· 51486
	46. 인생의 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도 있으므로 이 문제를 현실로 받아 들인다	· 45023
	29. 개인적인 느낌과 관심사를 배우자에게 이야기 한다	· 44206
	18.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 43749
	14. 쇼핑을 한다	· 40586
	3.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계획을 세운다	· 40004

13. 잠을 잔다	· 39058
44.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	· 37939
23. 취미생활에 몰두한다(예술, 음악, 조깅 등)	· 36767
58.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 문제도 지나가 버린다고 믿는다	· 36030
35. 같은 문제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얻는다	· 31664

	대 응 행 동 요 인	요인부하량
요인3 사회적지원	59. 이웃과 문제를 털어놓고 의논한다	· 73261
	56. 친척에게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다	· 69319
	41. 이웃으로부터 호의나 지원을 구한다	· 67398
	32. 친척에게 그 문제의 고충을 의논한다	· 62504
	36. 친척으로부터 조언을 얻는다	· 61225
	51. 친척들과 모이는 기회를 만든다	· 60577
	57. 종교인에게 조언을 구한다	· 50735
	49. 친구의 도움을 받아 긴장을 푸는 훈련을 한다	· 48345
	47. 친한 친구가 내 걱정거리를 들어주고 함께 걱정해 준다	· 45582
	37.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을 얻도록 한다	· 44156
	40.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얻는다	· 39367
	52.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 조언이나 조력을 구한다	· 38656
	33. 친구로부터 위로받거나 도움을 받는다	· 37115
요인4 종교에의 의지	54. 종교활동을 한다(교회나 예배참석 또는 절에 간다)	· 77744
	45. 기도를 드리거나 불공을 드린다	· 72672
	39. 종교를 갖는다	· 70924
	55. 실망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더욱 적극적인 좋은 것으로 고쳐 생각한다	· 44228
	16. 집안일을 도와주도록 다른 가족원의 협조를 얻는다	· 33638
	50. 어려움은 예상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다	· 31134
	28. 자신의 모든 정성을 자녀에게 쏟는다	· 30716
48. 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운이라고 생 각한다	· 25665	

〈부록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연령	18-24			1.1(3)	교육수준	무학			1.1(3)
	25-34	25.6(71)		30.2(86)		국졸	1.1(3)		6.7(19)
	35-44	14.6(39)		13.0(37)		중졸	4.4(12)		8.4(24)
	45-54	22.5(60)		24.2(69)		고졸	15.1(41)		30.5(87)
	55-64	26.2(70)		24.6(70)		대졸	61.8(168)		47.0(134)
	65세이상	10.1(27)		7.0(20)		대학원이상	17.6(48)		6.3(18)
	계	100.0(267)		100.0(285)		계	100.0(272)		100.0(285)
직업						남편	아내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대기업주, 자본가, 정부의 최고위 관리직					5.6(15)	0.4(1)		
	전문직, 관리직					45.4(122)	4.3(12)		
	사무직, 기술직					24.2(65)	10.4(29)		
	자영의 상인, 기능인, 서비스직					12.6(34)	4.3(12)		
	피고용기능					1.5(4)			
	단순노무자, 청소원, 행상					1.9(5)	2.2(6)		
	시간제 근무						0.4(1)		
	무직					3.3(9)	77.1(215)		
은퇴					5.6(15)	0.7(2)			
계					100.0(269)	100.0(278)			
종교	남편		아내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천주교	8.8(23)		15.5(42)	65만원미만		18.4(53)		
	개신교	32.4(85)		38.2(108)	가족	65만원이상~100만원미만		26.8(76)	
	불교	6.5(17)		14.8(42)	소득	100만원이상~145만원미만		22.5(63)	
	기타	0.8(2)		0.4(1)	수준	145만원이상		31.3(89)	
무	51.5(135)		30.7(87)	계		100.0(281)			
계		100.0(262)		100.0(282)					
가족수						남편		아내	
						백분율(빈도)		백분율(빈도)	
	2명			9 (45)	가정생활주기	신혼기 및 미취학가족		29.3(83)	
	3명			15.5(44)		학동기 및 청년가족		21.2(60)	
	4명			27.9(79)		진수기 및 노년가족		49.5(141)	
	5명			23.7(67)		계		100.0(284)	
6명이상			14.6(41)						
계			100.0(276)						